

“제주 본향당 이야기”

- 토산한집 본풀이 -

1. 채록대상자 : 강복녀/심방
2. 채록일자 : 2017.05.18

웃도 토산한집 옛날에 그디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중산이우다. 양 중산 해 그넝 웃도는 일뤼, 알도는 여드레하면 방울 치는 거우다. 이 분이 집(長)네다. 이 분이 짚어. 이 분이 진건 예, 우리 푸다시 할 때마다 방울 치는 세풀이를 꼭 해야되 마씀.

시왕맞이 해여그네 마작을 네겔 만듭니다. 기러기(길이)가 이만씩하게 길어. 스무자는 넘주. 경 헌걸로 해 그네 마작을. 예 칠성 푸는 거, 경허곡 수덕이 또 한집 나시. 평대 ‘수덕이’우다. 수덕이 나시 놓고, 산신놓고, 수덕이가 평대마씀, 계난 평대사람 세화리 결혼을 하나, 여기 사람이 평대를 가나흐면 꼭 수덕이나시 놓니다, 상도도 경허곡 상도도 수덕이나시 놓고 머물너머 한집, 옛날엔 사돈을 못허게 했쑤게.

웃도는 일뤼, 알도 여드레, 한집이라고 얘기 업어그네 예 건 송당한집 풀이우다. 아기 놀리는 거.

지금 풍낭 두 개가 큰 거 이서양, 본향당 아래, 안네가 아니라 베꼈디, 하나가 두 갈래로 갈라져쑤다. 경헌디 어떻 한 남섰 떨어점젠 한 불질러 부난 죽여부난 그디 아들도 그냥 죽었쑤다. 그 죄로, 그것이 산신, 타박한 거. 자발적으로 났쑤다. 자발적으로 나네,

나 꿈에 내가 심방 안할 때라 마씀. 낭두개 칠성 수덕이하고, 얘기 놀리는 건 거기는 엇쑤다. 거기는 어서도 얘기 놀리는 건 그자 큰 곳할 때만 얘기 놀리는거 합네다. 세풀이 할 땐 안하고. 정일에 가면은 그냥 세풀이 할 때도 이건 어수와 불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도 자꾸 나오니께, 이 본풀이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웃도는 일뤼는 ‘방울침’이고, 알도는 여드레 얘기 놀리는 거, 다른 사람은 웃도가 일뤼영 해주마는, 웃도는 일뤼 알도가 여드레엔 합니다.

판사람은 알도가 방울 치는거엔 해주마는, 우린 경 해 그넝 얘기 놀리는 건 여긴 낭은 어쑤다, 수덕, 타박한 낭은 산신이고 예, 알또는 여드레. 칠성관련 한 것은 일뤼 방울침, 방울침이우다, 일뤼당이우다, 것이 토산한집이엔 해그네예. 옛날은 토산사람 정의사람들 사돈을 안하젠 햄쑤게, 돌라운덴.

얘기 놀리는건 송당 아들 호첩이엔 합니다, 금백주 할마님 아들이 웃도는 일뤼, 알도는 여드레 한집에 누가 돌고 돌아 오랏쑤다.

하면 애길 이제 금백주 할마님 세명주할마님 송당이 소천국은 하르방 웃도는 금백

주 할마님 난 아들이 일곱성제우다, 일곱성제난 각 처소에 김녕도 가고 신양리는 다섯차우다,

신양리 간 건 다섯차 가곡, 계난 이 송당본향이 제일 제주도에서 큰 본향입주, 백주할마님이 옛날 물웃 속곳 이룬디 처대 하나 어서네, 소섬 다리를 못놓았젠 합니다.

금백주할마님. 경허기 때문에 이 오름 움막움막 한디 다 할망 발자국이엔 협주, 애기놀리는 거는 금백주할마님 아들이 금백주 할마님 아들이 일곱차 아들인가 하이튼 금백주할망 아들이우다.

아들인디 그 애기도 아버지 무릎에 아장 아버지 뺨 때린 제척 하르바님 무릎에 아장 하르바님 삼각산이영 해그네 수염 홀튼 제척, 또 마당에 날랴 널지 안수과, 날래 널면 대막댕이 행 강 막 젓어불언 허꺼부나 그 제척.

하도 행실이 나쁘난 조근조근 걸 모두아난 죽으렌 쇠철이 아들 불러단 무쇠솔각을 짜단 그것에 들여난 바당에 들러 대껴배서 마썸, 아들을 죽으렌 들러대껴부난 동바람 불면 서바당드레 들고, 서바람 불면 동바당드레 떠 댕기단 요왕황제국에 들어간거라 마썸 요왕황제국에 들어간 요왕황제국 꿈에 선몽을 들여서 마썸.

무이낭상가지에 무쇠솔각이 걸어진 걸 꿈에 선몽을 들여내, 야 큰딸애기야 나와보거라.

무사 무이낭상가지에 무쇠솔각이 걸어진거다 강 보난 아무것도 없습데다. 셋딸애기야 느 강 보라, 간 보난 아무것도 없습데다.

계민 족은딸애기야 강보라, 간 보난 요왕황제국님도 딸이 세성제라 예, 딸이 세 성제난 족은 딸은 간 보나네 무이낭상가지에 무쇠솔각이 걸어졌수다.

계민 큰딸애기 강 느려오라.

아무것도 못해 마썸.

느리젠하민 못내려.

셋딸애기야 느려오라.

셋달애기가 가도 못느려.

이제 겐 족은딸애기 간 느려오난 간 영 건드린 체로 살강 느려진거라 마썸. 이젠 황제국이 하는 말이 큰딸애기야 무쇠솔각을 열어보라.

열어집니까 어무것도 못핍수다.

셋딸애기야 열어보라 아무것도 못핍수다.

족은딸애기야 열어보라 하난 족은딸애기

이 흘목을 영 걷어내 그냥 대가리 주먹을 앗안, 세 번 팡팡 하난 살각하게 열어서.

열안보난 곱닥한 도령이 아자서, 아니 겐 요왕황제국은 사위나 삼아보젠

큰딸방으로 들어가라 눈도 아니 떠간다.

셋딸방으로 들어가라 눈도 아니 떠간다.

족은딸방으로 들어가라 하난 서른여덟 니빠대가 덩씩하게 웃으멍 족은딸방으로 들어간거라 마썸.

들어간 너는 무신 음식을 먹었디 영 허난

그와같이 경 골은거라 마씀.

그 소천국 아들도 곧는 말이 술도 전동일 먹읍네다, 안주도 전머릴 먹읍네다.

경 골아분거 아니파, 경허난 요만한 집이서 요만 사위 멕일 수가 없겠느냐 헐

석들을 살아가난 동창괘도 비와간다, 서창괘도 비와간다, 막 문딱 비어가는거 아니

파

족은딸 신사람아 너를 일찍 실으며 나고가라, 한 살적에 입던 옷을 열다섯 15세 77
정 입은 옷을 조근조근 모다놔네.

따시 쇠철이 아들 불러단 또 무쇠술각을 또 짠 두갓이를

이젠 짠 사위영 헐 담아네 종간(잠가서) 물 우트레 띄워배서 마씀. 물 우트레 띄워
부난 동바름 불면 서르레, 서바람 불면 동드레 해 가단 어딜 가시냐 하면 함덕 ‘무진
개’로 올라와서 마씀. 무진개로 올라오라네 허난, 그 하단 보나네 뭐가 된 겁주.

포태가 된 거라 양, 아기씨가 포태가 되난 입이 막 굳어서 입도 굳고 목도 마르고
허난 그디 올라오란 보나네, 이 돛(돼지) 발자국 돼지 댕겨난 발자국에 물이 벤직벤직
골라시난, 보리집 깨기 행 물을 뿔하게 뿔아먹으난 그 돛드술이 콧구멍을 찢러분거라
마씀. 찢러부나네

짖은 피가 벌컥 난거 아니파

경허난 그 문국성 아들은 하는 말이 어떻허난에 널량은 놀피가 남시넌 허난

그게 아니고 돛드스레 물이 벤직벤직해시난 물이나 한직 먹젠 보리집까지로 뿔아먹
은게 콧구멍 찢러부난 핏내가 남수다 허난

괴씸하고 토심하다, 너는 쌀도 물도 어슨 대정 만리 가달기섬으로 정배귀향 가렌
보내부려서 마씀.

경 정배귀향 간거 아니파 겐 오단보난 곱닥한 또 애기씨가 걸엄신디, 호첩을 거느
린거라 마씀. 족은각시를 한거라.

족은각시를 돌아아져네 알손당 넘어사고 셋손당 넘어사고 웃손당을 올라가나네 금
백주할마님이 이젠 느진덕청하님 거느려네 콩을 불럼서 마씀.

콩을 불럼시난 느진덕청하님이 허는 말이 큰 상제님아 죽으라고 던져 분 상전이 호
첩을 거느려 오람수다 허난

야 이년아 보건 본디 버리고 들은 건 들은 디 버리라 무쇠술각 채지기도 연삼년,
살삭기도 연삼년인디 그 쓸데어신 말을 햄젠에 겐 막 그냥 야단을 허난 그게 이젠 아
들이 또 부술을 부려부려서 마씀.

풍채 아사 들언 한번 거떡거떡 푸끄난 콩을 풀리는데 콩각지가 어멍 눈에 들어간
거 아니파 눈에 들어간,

아이고 콩각지 들었져 허멍 눈을 부벼가난 아들이 또 한번 영 아산 푸끄난 콩각지
가 알려레 눈에서 떨어진거라.

떨어진 배려보난 아닐커라 한 일곱살에 죽으랜 던져분 애기가 호첩을 거느려 오지
않았수가. 아이고 암만 이년애 애기라도 죽으랜 던져분 애기를 어떻 얼굴 상봉을 허

리. 경 헨 할망은 듯다네 어딜 가냐면 즈배낭 마을에 긴에 속곳하난 그냥 죽어부러서 마썸.

죽어부난 그 호첩은 하는 말이 낭군님아 이디 착한 대부인 있젠 헨게 어디갔수과.

하난 쾌썸하난 물도 살도 없는 대정 만리 가대기점으로 정배귀향 보내분거랜 허난 아이고 이 어른아 나는 그 착한 대부인 정배귀향 보내는디 우리 어뎡 호첩이 허영 삽니까, 신도 안 입었고 정도 안 입은 때에 나도 나강 가쿠덴 해 가난 , 그 소천국 아들 허는 말이 그리허거들랑 대정 만리 가대기점으로 가 그네 큰어뎡 정배귀향 풀려 뉘 그네 풀려다 그네 헌공일공 해 그네 살기가 어뎡하느냐 허난

계건 어서 걸랑 경 험서 헨

이제 지성귀도 일곱을 하고, 애기 살바 영 지성귀 일곱 싯 걸레, 일곱 아사 아정 대정 만리 가대기점으로 가지않았수과, 가네 앗앙 가네 간 보난 애긴 소랑소랑 난 도 랑 누워시나네 그 호첩이 하는 말이

설운 성님아 정배귀향 풀려다그네 헌공일공 하젠 오랐수다, 영 하난 부처님도 시앗 시영 하민 눈도 아니뜨는데 백장대를 돌아누원 배린척도 아니한거 아니파

설운 성님아 싯걸레도 일곱을 거느리고 집보살도 일곱을 거느리영 오랐수다, 지성 귀에 일곱을 거느리영 오랐수덴 허난 그뎡 돌아누원 하는 말이

설운 동서간에 착함도 착하다, 고마움도 고맙다. 난 이 애기 일곱을 설고 배고 낳 고 하젠 허난 입이 곱아시난, 날랑 그네 해각으로 가그네 계보말이나 좃영 먹영 가크 메, 놀라 그네 이 애기 일곱을 거느려아정 웃손당을 올라서라, 영 허난

이제 어서걸랑 경험서 헨

애기 일곱을 거느령 오단보난 신엄 ‘출기동산’엔 हु디 오난 신발이 톱 끊어져배서. 신발을 메당보난 애긴 하나가 오꼳하게 일러분거 아니파, 일러부난 암만 찾아도 찾지 못하난 애기 여섯을 돌아아전 가나네, 그 큰어뎡이 하는말 이 애기는 일곱인디 애기 하난 어디부런디 하난

아이고 신 발 끊어진 신발매다 보난 애기 하난 잃어배서.

그게 어느 게 다슴태냐, 눈이 으선 버렸느냐 코가 으선 버렸느냐, 어째서 그 애기 를 버려뉘 와시냐.

가그네 잃어분 애기 찾아오렌 훈육을 막 야단을 한 거 아니파.

경허난 또시 이젠 신엄출기 동산에 애기 찾으레 온 거라 마썸. 애기 찾으레 완 보 난 애긴 막 그냥 어뎡 일러부난 새끈 위에 누워네 하도 울영 둥그러부난 막 몸에 새 끈으로 하도 찢러부난 눈도 다 곱방눈이 되어가고, 몸에 물비리 쟁비리 너벅지 막 피 부병이 된거 아니파, 경 허난 그 애길 이제 그뎡에 잃어분 애기 거부침시 헨, 애길 이제 꾸민걸 확하게 돌려업습니다.

오란 계난 그뎡에 경 헨, 이제 그 애길 업언 오란 시아방 방에 강 보난 진지썸이 떨어지고, 시어뎡 방에도 들어강 보난 진지썸이 떨어지난 애기를 업어아저네 그 방엘 지어서 마썸.

방에 애기업어 아진 방에 지영 하민, 방이짐정 이거 채짐정 푸는 채 영 해그네, 애

기 여름애긴 오래불민 사트민 물러온다, 저슬 애긴 오래불민 발이 곳아 온다 해 그네,

애기 부러 그네 몸 곱정 삼삼은 흘글멍 구덕에 낳 흔들멍 삼삼은 꺾이여, 시레기행 애기 맥이고, 이젠 또시 댄 큰어멍 저준 돈대떡, 동글랑 한거 돌레떡은 큰어멍 지어준 돈대떡, 방울떡은 족은어멍 지어준 좀매떡 해그네, 우는애기 가슴 잠자는 질력한 업은 때 떡 해그네 영 맥이고, 영 맥여그네 춤추고 경 해놔그네 몬딱 지성귀 다 꿰여 그네 해놔.

당골들 신디 아방춧앙 가라 어멍춧앙 가라 상단골 춧앙가라 중단골 찾아가라 하단골 찾아가라 해그네, 이젠 꿈에 아정 애긴 막 인정을 줘야 경 허민 물비리도 걸어줍서 쟁비리도 걸어줍서, 너븐기 흉나물 피부병도 걸어줍서 경하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눈아판 저 눈아픈 것도 걸어줍서, 바쁜 기침 한기침 하는 것도 걸어줍서, 경허멍 해그네 신칼로 해그네 양 인정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경 고릅니다, 아이고 이거 기자 옛날 통일하듯이 통일 골멘하듯 어느 조상님인 철은 알암서 하는 심방도 있습니다. 단골들 고라.

기자 통일 골로듯 놈들 조상이엔 하난 조상이구나 햄주. 게난 그 조상에서 것도 경 물비리 쟁비리 피부병 다 불러줍니다.

경 허곡 그걸로 해 그네, 이젠 인정반앙 인정이랑 받아당 어멍드레 여여 헨 본향드레 거 본향이기 때문에 예. 안앙 막 춤추다 그녕, 본향 옷트레 강 예 본향하민 아무 디서라도 본향 여기서 굿하민 본향, 다 집안에 솔 당클 매면 본향당클이 있습니다. 영 행 허민 당클로 옷트레 가그네 올리곡 경험니다. 그건 그걸로 끝이고 예.

방울침하는 것은 초당부터 하면 옛날이라 옛적에 나주 금상산에 영기가 썩었구나, 신력이 세었구나, 생인은 본을 풀면 백년월수가 된, 신전이 본을 풀면 신나락만나락 풀어지는 법입데다,

영 해놔뒤 그녕 옛날이라 옛적에 나주금성산 올라사난 앗은 안개가 탕천했구나, 산 안개가 탕천했구나, 두챙이챙 거닐려다 굿삼석을 올리치난 앗은 안개 걸었구나, 산안개가 걸었구나

여기에 영기 신력 있습네다, 말 하멜을 하고 걸읍서, 영 하난 목사가 하는 말이 남자에 대장부 행차길에 무슨 하매가 있겠느냐, 어서 가자 얼마 가 가단 보나 아닌게 아니라, 앗은 안개 탕케란 말발도 저려볼고 말이 그냥 가단 주저앉아분거 아니파, 게난 굿삼석을 올리시라 방개삼찰 올리시라 영 행, 이젠 굿삼석 방개삼차 다 올리난, 앗은 안개도 걸어지고 말이 일어 산 가단 보나네 네 귀에 풍경이 돌아이서 마썸, 네 귀에 풍경이 돌아전 브려보난 이젠 꼭 같은 애기씨가 있는거라, 브려보난 애기씨가, 청고하고 대맹이가 고기로 실척 몸천을 배왔구나, 애기씨가 이제 부술을 부려서 구신이 된 거라 마썸.

한 눈은 뜨고 검은 새 한 개 붙이고 한 아구린 지에 붙이고 청구하도 대맹이가 호구를 실척 몸천을 배와가는구나, 어마 뜨거라 이만하민 어평허리

계랄 떠리는 장수가 있겠느냐, 불 잘 놓아 정초관이 있겠느냐, 있습네다, 불러다가

네 귀에 불 삼방 들린 불을 찾아볼렌 당집이 불을 짓으렌, 그것도 본향에 당집에 불을 찾아볼렌 하는거라 마썸.

경허난 이제 그 불을 부껴부난, 이젠 바둑바둑 옥바둑이 되분거라, 이젠 그것이야. 이젠 바둑바둑 옥바둑 금바둑이 되난 오씨방 손에 주워놓고 말을 하되 우리 제주도에 가져가시믄 본당도 설립할 만한 신당도 설립할 만한 아인웃에 겐 옷에 덜 할만하다.

밥집이 가믄 밥도 줄만 술집이 가믄 술도 줄만, 입으로 속담을 허여놓고 술주멍 어멍신디 가져가고, 혼잔 두잔 세 석잔을 먹어부난, 이제 물로 받읍서, 입으로 물 받읍서, 우린 노술 채비가 어수다. 계난 그걸 술값을 받으켤 한겁주, 경허난 당신 눈에는 재물과 복이 같으되 우리 눈엔 재물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라 구신들이 의탁할 듯 흐는구나.

경허난 이제 삼동무가 이제 한시성주 오씨선주 이제 강씨선주 해내, 세동무가 가는데 그걸 이제 아이고 놔도 아니하는 재물이난 우리도 와난디 와볼져,

서울 종로 네거리간 놔베서 마썸. 놔부나네 그냥 배는 일흔일곱척이 제주서 일흔일곱척이 가네, 일흔여섯 척은 제줄러레 뱃발을 돌려도 오씨 선주 한씨선주, 강씨선주 탄 배는 뱃발이 똥똥 쳐내 바람이 납네까, 배 순풍이 없거든.

엇으난 어디간 문점을 하난 당신네 입으로 속담 궤리 있습니다. 백장안네 파란 포를 열어봅서 당신네 옥바둑이 들었수다 금바둑이 들었수다. 계민 그러민 어찌합니까 화장아야 불려단 매삼보시 쳐난 삼물 숲양 몸 목욕하고, 매삼보시 쳐놓고 백돌레 백시리 청감주 계란안주 축문을 출려낭 방개삼철을 덩덩 올리면은, 맹지와당 실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영허난 양 영자 화장아 몸 목욕 단장하라. 매삼보시 쳐 올리시라. 백돌레 백시리 청감주 계란안주 축문을 출리시라. 축문을 다 출렸구나,

방귀삼차 올리라하난 이제 굿을 한거 아니짜, 굿하난 아난게 아니라 맹지와당 실바람이 나서마썸.

맹지와당 실바람이 나난 순풍이 됐구나 이제 어딜 노리냐, 배추판을 대서 마썸, 배추판을 대나네 삼천선비들이 거기서 바둑장기 두어 장기 됴서, 두엄시난 아기씨는 이제 7는대구덕 질로끼에 능할랑할 부인한티 간 명함을 드려 어딜로 가민 공하는 당이 있습네까 하난, 토산을 가렌허난 어딜로 가면 공하는 땅이 있습네까 하난

저 토산 '매뚜기모르' 가보라 하나네

가노렌 하나네 삼천선비가 바둑장기 두어 장기 두시다가 꽃같은 애기씨가 애기씨가 지나감시난 그냥 뒷전으로 눌러들영 흘목이를 확하게끔 심어네 존등이를 폭하게 안아분 거 아니짜, 안아부난 그 애기씨 하는 말이

얼굴은 보난 양반후레 같은데, 속은 무식하고 나쁘다 하는 말입주 예. 영 허난 우리는 양반후레 아니라 개로육서또가 되어진다. 아이고 개로육서또 이제 심었던 흘목인들 놓았당 뉘해 이녁냥으로 흘목을 깎아네 던져부러서. 계난 피가 날거 아니짜 피가 잦은 피가 베풀베풀 나나네 맹지전디, 아썸 들렁 외우칭칭 ㄴ다칭칭 감앙, 허릿돌에 허릿시고 마음돌에 마음신다.

돌아앉앙도 도로 하민 그때 또 방기삼차 당당 두드려마씀. 게난 이제 그게 이젠 경
한 방기삼차 등등 울려나넨 마음 돌음 마음시고 올리난, 초일뤼에 열일뤼에 스무일뤼
오씨애기 아니민 오씨선주 아니면 이런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수 있겠
느냐, 오씨애기 열두 송흙 불러주게 애기씨 오씨 혼연혼식하젠 평안 강칩이 시집을
가젠 혼연을 맞췄어 마씀.

혼연 맞춘디 오씨 선주가 작패를 하여 네 아상강 술집이 강 걸로 술 사먹언 해부나
네 별로 해야져네, 이젠 애긴 애기신디 풍부 갖추는 거라 마씀.

느진덕 거닐어네 올리 연서답 하노렌 하난

상제님아 상제님아 저 물머리 트레 바레여복서 나무나라 뜨거웁수다.

야 본디 버리고 아무걸ㅎ민 어땡.

빨래나 혼저 하라 느진덕정하님은 안일커라

그냥 세 즈른놈 목 즈른놈들이 기냥 무등력 총각들이 오란덜 문간이 화륙 저레 화
륙 해가난 그냥 아마 뜨버라

이만하민 어땡하리 걸어아지라. 놀려들라. 목은 각 놀려두난 이젠 푸드등 썩이 날
아가난, 에 썩 곱아난디라도 곱아볼젠 무등력 총각들이 겁탈시키젠 하난.

겁난 치마버리 벗어잡네다 바지머리 벗어잡네다.

치마머리 벗어지민 어땡 바지머리 벗어지민 어땡. 이쨍저쨍 감춰보져.

이젠 애기씨는 그냥 죽어부러서 마씀. 아이고 사람 죽언 내볼 수가 없다. 옛무덤
시기라. 편안강씨 혼령 이 들어네 그냥 가잔 하는 새각시에 풍조를 줘부난 그냥 그
애기씨가 프릿프릿 죽어가는거 아니꽈

다 죽어가난 아까 가운디 말 하나가 끊어배졌수다. 귀싸 초일뤼 열일뤼 스두일뤼
풍낭아래 경험니다. 유월 초일뤼 못간사람 유월 열일뤼 가고, 초일뤼에 앉아 기다리고
열일뤼엔 상 기다려, 우리 당골들 얼마나 오라신고 스무일뤼는 에에 오라마나하라. 느
없거들랑 오건 받아주고 안 오건 말주 영 행, 여름엔 그디 옛날엔 밀을 가난 밀빵을
행 가그네 올립니다. 방울떡 해그네 허곡 예, 또 동짓달 11월달에는 옛날엔 산디 모
물을 하난 그거 해 그네, 돌레떡하고 방울떡하고 겐 가그넝 그 말을 꺾 빼부렸수
다.

초일뤼 못가민 열일뤼가고 열일뤼 못가민 스무일뤼 가곡 경ㅎ는 거우다, 것도 여름
에, 여름에나 동짓달에나, 그게 방울친다, 경행ㅎ난 그런 츠레 압서, 시누이 혼력이
들어노난 애기씨는 프릿프릿 다 죽어가는거 아니꽈, 누웠닥 살앗닥 해가난.

어디간 문점을 하난 애기씨 혼력이 들었수덴. 초세나무 열립 쉰 해서. 초세나무 열
립 쉰 하난 큰 곳을 해야야 이 애기씨가 살아난 댄 한겁 주. 막 그냥 방에질왕도 늦
으민 늦은 대로, 밝으민 밝은 대로 애기씨가 죽어가명도 한번은 광패를 부리고 한번
은 광질을 하고, 한번은 옳은 정신 허곡 허명, 방에도 쥐엇당 말앗당, 형편어시 광질
을 해십주.

영 해가난 그냥 어디간 문복을 하난 애기씨 혼력이 들어시난 큰곳을 헉셴 혼겁주.
큰곳을 헉셴 ㅎ난 큰곳을 하젠ㅎ난 이젠 다 초다맨 솔째기 빌언 빌어봐도 아니되난,

이젠 퇴승을 해봐도 아니되어 세푸다시를 해봐도 안살아나난 할 수어시 조생문이 불러다가 그 심방이 아마도 조썬골아, 조씨 불러다가 초감제 넘어들영 초신청괘 넘어들어 초산괘 넘어들어 또 금공서 넘어들어 초공풀어 초공맞이해, 이공풀어 이공맞이, 삼공풀영 시왕연맞이, 계난 삼공풀어사 시왕맞이를 합니다.

계난 삼공풀영 시왕연맞이 날은 막 심방이 굿허단 이제 애기씨 살리젠 허민 상머룩에 매였던 발갈췌 내낭 절물제랑 짓아정 도살을 해여그네, 제물을 바쳐사 애기씨가 살아나주 그렇지 않으면 애기씨 못살리쿠텐 하난, 애기씨만 살아난댄 하민 그건들 어려울 수가 이시냐 영 해낸 제일 상 탄 발갈췌에 이젠 쇠막에 췌 안에 것이 제일 큰 췌라. 막 별경한 큰 황쇠. 그걸 이젠 해단 잡아네 굿을 해수게, 경 허난 죽었던 애기씨가 그냥 살아난 그냥 신젓국 물언 애긴 죽은걸로 내분디 애기가 살아난 누게 울운 굿이파

애기씨 울운(위한) 굿이우다. 뿔을 낳 굿 햄수과

애기씨 가져댕기던 단농에 단바깥에 상머룩에 매였던 발갈쇠 내낭 재물제를 짓어아정 굿을 햄수다 하난

것도 잘 하는 일입니다마는 나누는 심방 전에 퀘삭문 췌문을 열영뵈서, 우리 아버님 첫 서울 가실 적에 나 나시 선세문안 있습니다.

시집을 가젠 하난 혼사 하젠 간 거라. 그걸 내놔 그네, 이제 강씨 마흔댓자 상방울이내 가슴을 풀려줍서 살아날 듯 합네다.

오씨 한씨선주 스물댓자 상방울 이 내 가슴을 풀리민 살아날 듯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퀘삭문 췌문을 열안보난 무석이 있는거라 마썸, 삼석백이 그걸 내놔 이제 내놔 곱이 촉촉 게어놔시난 폼단 보난 부짱 몰라 붙어서 마썸.

아이고 이거 이 노릇을 어떻하린 헨, 시왕전 앞으로 시왕맞이 하는디, 그걸 낳 난 산국을 풀었수게, 방울침 풀어가난 조상님 살아나는 대로 오늘 쌀 놓고 종이깔고 계란 놓곡 합니다. 방울침으로 풀주.

환자 아찌냥. 조상님 살아나는 대로 이 애기 살려줍센 하단보난 아닌게 아니라 애긴 오길하게 살아난거 아니파 방울침하는 거우다.

굿할 때 세 번을 풀니다. 세풀이 할 때도 세 번, 세 번을 풀어,

우린 풀어야. 거 안풀면 세풀이 한거 닭질 안허여. 그걸 풀어봐사 환자가 낫주. 어떤던 저런 안합니께 저 어딜로 굿 안합니다 양, 김녕 월정으로부터 저런 안하곡. 시에선 방울침도 할 줄 모르곡 애기놀릴 줄도 모르곡. 우린 시에강 굿을 하곡(할 수 있고)

시에 사람들은 이디 왕 굿을 못합니다게.